

‘공소 취소 부탁’ 폭로 후폭풍... 친윤·친한계 갈등 가속

국힘 전대 후보 토론회서 발언...한동훈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 친윤계 “동지 의식 없어” 비판·친한계 “공격 방어중 한 말일 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내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관련 발언을 한 뒤 18일 여권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이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후보 간 설전은 더욱 불이 붙는 형국이다.

당사자인 나 후보는 이날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정기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전혀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었다고 규정하고, 자신이 당시

‘빠루’라 불리는 쇠 지렛대를 잠시 집어 보았던 순간을 회상하며 “지금은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자신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에 맞섰던 사건을 소환,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표결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며 “동지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드러낸 발언이라고 한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몇몇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한 후보를 난타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형사사건 청탁 프레임이 들어나왔다.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라며 “당 의원 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보 파서야 되겠다”라고 비판했다.

계파색이 얽은 이양수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의 발언을 “전략상 실점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패스트트랙을 재판받는 의원들이 30명인데, 그 감정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세미나 세미나에서 “(한 후보가) 까발린 게 참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유명 가수) 임영웅 보듯이 해서 되겠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후보 발언의 맥락에 비춰보면 이 같은 공격이 과도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의 책임을 추궁하자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나 후보가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기에 들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내부 총질이나 제 살 깎아 먹기가 아니고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나 의원이 너무 공격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소했어도 취소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되는데, 그거를 사적으로 부탁한 거다. 만약에 들어줬으면 둘 다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총동 사건은 공소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총동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편해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총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금투세 전면 폐지’ 재확인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문제

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누구도 금투세 유예나 폐지 법안을 낸 건 없다”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부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인철, 친환경차 세계 혜택 연장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사진) 국회의원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계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세계 지원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이상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전기차·수소차 시장에서 세계 혜택의 종료는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우 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

25일 본회의 개최는 요구...국힘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방송 4법 입법을 보류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

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25일 본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이날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와 다수 의원은 우 의장 중재안 수용에 힘을 실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

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언론탄압 증언대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여러 제안을 줬는데 그중 하나도 이상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며 이는 “여당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의 중재안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우 의장이 많이 고심했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 입장이고, 과방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퍼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